

● 第 22 회 전국도서관대회 주제발표 2

圖書館의 地域協力體制

金 斗 弘
釜山女大圖書館學科教授

I. 序 言

學術과 經濟의 발달은 人間社會에서 다각적 反應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크게는 人間の 抱負水準을 고양하고, 작게는 情報要求의 증대와 다양화를 초래한것이 그한 例이다. 이와 같은 정보요구의 증대와 다양화는 한 單一圖書館이 設想 無備의 資源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객의 要求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함을 시사한다. 圖書館間의 協력이 요청되는 연유라 할 것인 바, 이 協力は 圖書館機能의 한 屬性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司書의 資質要件 혹은 德目の 보기들 가운데에는 “協力性”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고, 司書職倫理綱領(美國) 같은 데서도 그것이 강조되고 있다.

도서관 간의 協力は 규모상으로 보아서 작게는 雙務的인 것이 있고, 크게는 國家的인 것과 救濟的인 것이 있는데, 本人에게 주어진 主題는 地域的協力이다.

協力에는 “協”字가 암시하듯이 心理的 要素와 物理的要素가 내포되어 있다. 협력의 成果는 協力の 心要性을 인식하고 自發的으로 협력하고자 하는 협력기관 從事者들의 동기가 수반할 때 增幅된다. 이와 같은 동기는 협력을 持續시키고 협력의 質을 向上시키는 기반이 되기도 한다.

圖書館 地域協力の 一般內容으로서 다음과 같은 事項들, 즉 資料의 相互貸借, 施設의 共同利用, 展示館 등의 共同開催, 對地域社會 弘報, 司書研修, 圖書館相互訪問, 親睦를 위한 會同, 會誌등의 發刊, 資源人士의 交換 등에 관하여 畧述하고자 한다.

II. 圖書館地域協力體制的 범위

A. 相互貸借

상호대차라 함은 “利用者가 필요로 하는 資料의 所在에 관한 것이 아니고, 資料가 利用者의 所在에 전달되도록 하려는 趣旨의 것이다.”

자료의 상호대차는 圖書館間 協力の 가장 보편적이며, 成果나 效果가 큰 활동이라고 보아진다. 이 활동은 도서관 顧客의 要求 즉 壓力이 주는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努力인 동시에 圖書館經營上의 해묵은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資金難을 完회시키는 한 方案이 되기도 한다.

도서관 간의 資料相互貸借 서비스 協同收書나 共同收書가 전개되어야 하는데, 이 같은 사전작업을 토대로 하지 않고서는 協力圖書館間的 惠澤상의 不公平 때문에 협력체제가 지속되지 못하고 허물어지기 마련이다. 所藏資料의 분량이 엇비슷하거나 強點있는 主題領域이 서로 다를 때에만 이 활동의 보다 좋은 成果를 期待할 수 있다.

雜誌의 경우에는 館外貸出이 禁止되고 있는 것이 通例이므로 도서관 간에 複寫 서비스의 交換이 이루어지고 있다. 協力圖書館들이 서로 상대방 도서관에 적당한 금액을 預託하여 두고 복사의 진행에 따라 適當하게 하는 方式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 상호대차에 쓰이는 도구가 藏書綜合目錄 혹은 雜誌綜合目錄인데, 우리 나라의 例로는 KORSTIC(지금은 KIET)에서 1968년에 펴내기 시작한 “外國科學 技術雜誌綜合目錄”이 있으며, 이 목록의 最近版(1983年)에는 국내 197개 도서관 및 資料室(주로 특정 研究所 소속)에 소장된 9,860種의 잡지가 收錄되어 있다.

地域的綜合目錄으로는 서울研究開發團에서 “과학단지 장서종합목록”이라는 이름으로 1972年 컴퓨터로써 편간하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는데, 몇 차례 출현한 뒤 지금은 소멸하고 없다.

B. 施設共同利用

시설 공동이용의 사례로서는 定期刊行物室, 參考圖書室 및 데이터베이스 등의 공동이용을 들 수가 있다. 하노버에 있는 TIB(技術情報圖書館)는 全國을 奉仕對象으로 하는 情報 서비스 기관이면서 하노버工科大學과의 계약에 따라서 同大學教授·學生에게 봉사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의 例는 존 크리러 圖書館과 일리노이工科大學 간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延世大學校, 梨花大學校 및 西江大學校 간에서 유사한 例를 볼 수 있다.

定期刊行物은 種類가 많은데다가 價格이 해마다 引上되고 있으며, 參考圖書는 워낙 그 가격이 高價이므로 이러한 자료를 收藏하는 施設들을 공동 이용하는 것은 讀者와 도서관 양쪽에 다 같이 유익하다. 이와 같은 시설의 공동이용에서 생기는 여유를 一般資料의 확보에 充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C. 各種展示會 共同開催

稀貴圖書나 古書 혹은 雜誌創刊號 등을 특별한 時機에 공동 전시하여 社會에 소개하는 것도 유익한 협력활동으로 생각된다.

中央에 소재하는 歷史가 길고 規模가 큰 도서관들은 이러한 종류의 資料를 비교적 많이 소장하고 있는 수도 있으나, 地方의 도서관들 중에는 그러한 特典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드물다.

따라서, 地域內的의 도서관들이 이러한 자료를 한곳에 모아서 共同으로 展示 할 필요가 있다. 一般社會人으로 하여금 書籍에 관한 知識을 넓혀주는 한 契機가 될 것이며, 그들은 도서관으로 유인하는 한가지 方法이 되기도 할 것이다.

D. 圖書館의 對社會弘報

圖書館週間이나 讀書週間 같은 時機에 講演會 개최, 포스터와 弘報用 팜플렛제작, 도서관 無料開放 등을 공동으로 實施함으로써 개개의 도서관으로서는 소액의 經費를 부담하고서도 전체적으로는 홍보의 成果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보는 一方通行的 自己誇示의 手段으로만 그치지 않고, 社會로부터 圖書館으로 利得이 돌아오게 하는 二重效果를 結果케 하는 方向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複數 圖書館間의 共同思考는 개개 도서관의 單獨思考보다 次元 높은 結果를 얻어낼 不能性이 크다.

존선(G. W. Jonhson)은 “公共圖書館의 役割”이라는 題下의 論說에서 다음과 같이 對社會弘報의 重要性을 강조하고 있다.

“民主社會에 있어서 모든 公共機關에 부과된 한가지 義務는 住民들에 대하여 그 자체의 存在事由를 제시하며, 무엇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계속 支援하여야 하는지 그 까닭을 지지시키기 위하여 항상 對備하는 일이다. 어떤 公共機關 이라할지라도 그 存在의 權利가 排戰圈 밖에 있을 정도로 當當하지 못하며, 아마도 그 社會 公同의 紀念碑를 제외하고는 過去の 尊貴함에 기반을 둔 現在의 配慮를 정당하게 요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존선의 主張은 비단 公共圖書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각 도서관이 그것이 속해 있는 社會 안에서 다 같은 處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 司書研修의 機會 마련

어느 圖書館일지라도 充分하고 有能한 司書職員을 保有하지 않고서는 效果的 奉仕를 제공할 수 없다. 또한 今일에 있어서 유능한 사서가 來일에 있어서도 유능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새로운 奉仕 類型이 출현하고 새로운 更宜施設이 끊임없이 開發되고 있는 까닭이다.

全國의 규모로 實施되는 現職司書의 研修機會는 制限되어 있으며, 설사 기회가 주어져도 出張으로 인한 勤務의 空白과 出張費 屢출의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자기 고장의 어느 한 場所에서 하루 중의 제한된 어느 時間帶에 연수할 수 있다면, 圖書館管理者나 同僚職員의 抵抗感을 감소시킬 수 있어서 비교적 부담감없이 研修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司書의 研修는 個人으로서 보다 유능한 專門職業人이 되게 하여 抱負實現에 도움을 주고, 도서관으로서 良質의 奉仕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그 社會의 存在價値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圖書館社會의 중요한 努力 가운데 하나이다.

職場으로서의 도서관은 將來性있는 職員들에게 매력있고 만족스러운 職業人 임을 自覺하게 하며, 모든 계층의 직원이 높은 水準의 職務滿足度를 가질 수 있도록 그 研修를 계획하여야 한다.

F. 圖書館相互訪問

圖書館管理者나 司書들이 다른 도서관을 訪問하여 그 도서관의 施設과 慣行을 관찰하는 것은 職員研修의 한 方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司書가 도서관 봉사나 經營管理에 관하여 自己研修를 계속하는 까닭은 司書로서의 專門性을 維持·發展시키기 위한데, 이 일은 어떤 研修課程을 이수하거나 文獻을 통하여 實現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도서관을 訪問하여 觀察하고, 그 곳 職員들과의 토의의 기회를 갖는다면 生생한 經驗과 情報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도서관 직원의 방문은 相對方도서관 직원들과 親熟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어서 相互協力을 促進시키는 플러스 要因이 되기도 한다.

방문은 計劃의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우연한 기회에 구경 가는 心情으로 하여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언제, 누가, 어느 圖書館을 訪問할 것이며, 무엇을 관찰하고, 누구를 만날 것인가에 대하여 상대방 도서관과의 協議下에 계획되어야 한다. 가급적 미리 作成된 체크

리스트를 가지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도서관 방문에 임하여서는 禮節과 誠實한 態度를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방문 도서관의 缺點을 지적하거나 브리핑 등 說明을 건성건성 들어넘기는 따위 태도는 禁物이다.

見學過程에 있어서는 觀察된 點, 느낀 點, 등에 관하여 메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見學結果에 대한 報告書作成의 資料가 된다. 방문 도서관의 方針이나 節次에 관한 資料, 弘報用資料 등을 할에받는 것도 留意할 일이다. 근무처에 돌아온 후 빠른 時日 안에 館長名義 感謝書翰을 보내는 禮儀를 지켜야 한다.

G. 親睦을 위한 會同

館長, 幹部 및 平司書들이 職位別로 (꼭 職位를 따질 필요는 없다.)적당한 빈도로 非公式的 會合을 갖는 것은 地域協力體制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公式的 會合에서 會議를 보기 어려운 事案도 非公式的 접촉에서 쉬 결론지어지는 일이 자주 있음을 본다. 組織成員의 個人間的 親熱한 關係는 組織間的 努力을 촉진하고 그 成果를 高揚하는 토대가 된다. 非公式組織의 力學을 應用하는 셈이다.

H. 會誌·뉴스레터의 發刊

努力體制의 會誌나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會員圖書館과 全國의 有關機關과 圖書館에 配布하는 일은 圖書館事業을 社會에 弘報하고, 도서관 간의 情報를 交換하는 効果적 手段이 된다. 이러한 홍보자료는 도서관의 存在와 要求를 要路에 認識시키고 理解와 필요한 支援을 확보하는 자연스런 媒介가 된다.

이러한 媒體의 體裁는 참신하고, 紙質과, 活字, 組版 및 印刷가 모두 上等이어야 한다. 우수한 原稿를 확보하기 위하여 會員圖書館에 대하여 義務를 과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I. 資源人士의 交換

圖書館職員 가운데에는 도서관 봉사의 어떤 部面에 특히 조예있는 사람이 있다. 圖書館建物에 관하여 풍부한 知識을 가졌거나 兒童圖書와 讀書指導에 능통하거나, 照明 또는 色彩調節 같은데 밝은 사람 등이 있다.

따라서 도서관을 新築하거나 改築할 때, 혹은 圖書館行事 기간 같은 때에 자문을 받거나, 도서관 職員 또는 讀者를 대상으로 하는 講演會의 演士로서 초빙하는등 地域內 도서관들이 다른 도서관의 職員을 서로 交換하여 活用할 수가 있다.

무릇 管理者는 自尊되되 我執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하며, 取捨選擇하되 우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관리자는 평소의 圖書館經營에 있어서도 民主的이며, 地域內 도서관 간의 協力에도 積極的일 것이다.

J. 結 言

圖書館間的 相互協力は 圖書館機能의 生來的 屬性이며, 도서관과 고객 양편에 이득을 준다. 協力は 협력하고자 하는 動機가 토대가 되며, 이 동기 협력의 成果를 增幅시킨다. 한 도서관은 힘이 적고 社會에 크게 보이지 않겠지만 도서관들이 聯合하면 強力하게 되고 顯著하여진다. 강력하고 현저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그들의 認識의 深度를 높이고자 함이다. 지역내 도서관들이 각기 協力活動의 對象을 모색하고 協力的 提議를 받아들일 態勢를 갖출 일이다.